



禮記

| 예기 함께하는 삶에서의 품위있고 예절바른
행위에 대한 기록

| 조민환 교수







예기

함께하는 삶에서의
품위있고 예절바른
행위에 대한 기록


10강. 대동(大同)과 소강(小康)





대동(大同)

『예기(禮記)』 「예운(禮運)」 편에 나오는 대도(大道)가 행해졌던 요순시대의 이상 사회로, 그때에는 천하가 공공의 것이어서 재산을 공유했기 때문에 권모술수가 없고 도적이 없어 사람들이 대문을 잠그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소강(小康)

소강사회는 공자가 추구한 '인'과 '예'를 갖춘 모범적인 군자가 다스리는 사회이며, 모범을 보이는 임금, 정책과 정치를 활용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회.



공동사회란?



천하위공(天下爲公)

천하가 한 집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라는 뜻 또는 임금의 지위



순원 (孫文)

중국(中國)의 정치가(政治家)



입상생활 속 대동과 소강



순원 (孫文)

제사(祭祀)의 의식(儀式)



대동

소강

大同(대동) : 옛날에 큰 도가 행하여진 것

小康(소강) : 유가의 성인계보에 속하는 인물들이 행한 업적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는 것

大道之行也，天下爲公，選賢與能，講信，修睦。

대 도 지 행 야 천 하 위 공 선 현 여 능 강 신 수 목

故人不獨親其親，不獨子其子，使老有所終，壯有所用，

고 인 불 독 친 기 친 불 독 자 기 자 사 노 유 소 종 장 유 소 용

幼有所長，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男有分，女有歸。

유 유 소 장 긍 과 고 독 폐 질 자 개 유 소 양 남 유 분 여 유 귀

貨惡其棄於地也不必藏於己，力惡其不出於身也，不必爲己。

화 악 기 기 어 지 야 불 필 장 어 기 력 악 기 불 출 어 신 야 불 필 위 기

是故謀閉而不興，盜竊亂賊而不作，故外戶而不閉。

시 고 모 폐 이 불 흥 도 절 난 적 이 불 작 고 외 호 이 불 폐

대도가 행해지니, 천하는 모든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현명한 자를 뽑고 능력에 따라 관직이 수여되며 신의와 화목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그 자신의 어버이만을 따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을 따로 보살피지 않는다. 늙은이로 하여금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게 하며, 장년은 그 쓰이는 바가 있게 하고, 어린이는 키워주고, 과부와 홀아비, 병든 자는 모두 보살핌을 받는다. 남자는 그 직분이 있고, 여자는 자신의 일이 있습니다. 재화가 땅에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굳이 사사로이 저장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노동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반드시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은밀히 음모하는 일이 생기지 않고, 도적과 난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깥 대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예기』 「禮運(예운)」



천하위공 (天下爲公)

천하는 모든 사람의 것



대동 [大同]

서로 간에 존재하는 작은 차이를 넘어서 평등을 통해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사회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다



강유위의 아홉가지 경계

인간을 괴롭게 하는 아홉가지의 경계



강유위
(康有爲)

중국 청(淸)나라 말기 및 중화 민국 초의
학자 · 정치가. 무술 변법(戊戌變法)의 중심적 지도자



대동서(大同書)

대동서(大同書, 1935)는 중국 청말 민국초기(民國初期)의 정치 개혁론자인 Kang Youwei(康有爲)의 유저(遺著)

- ◆ 국계(國界): 나라 간의 경계
- ◆ 급계(級界): 계급의 경계
- ◆ 종계(種界): 종의 경계
- ◆ 형계(形界): 생김새의 경계
- ◆ 가계(家界): 집안의 경계
- ◆ 업계(業界): 직업의 경계
- ◆ 난계(亂界): 혼란스러움의 경계
- ◆ 류계(類界): 무리의 경계
- ◆ 고계(苦界): 괴로움의 경계



강유위의 이상세계



소장사회란?



대동에 대비되는 소감



天下爲家

천하는 개인의 일가의 것이 되었다



소강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인**이 필요하다

大道既隱，天下爲家，各親其親，各子其子，

대 도 기 은 천 하 위 가 각 친 기 친 각 자 기 자

貨力爲己，大人世及以爲禮，城郭溝池以爲固。

화 력 위 기 대 인 세 급 이 위 례 성 곽 구 지 이 위 고

禮義以爲紀，以正君臣，以篤父子，以睦兄弟，

례 의 이 위 기 이 정 군 신 이 독 부 자 이 목 형 제

以和夫婦，以設制度，以立田里，以賢勇知，以功爲己。

이 화 부 부 이 설 제 도 이 립 전 리 이 현 용 지 이 공 위 기

대도가 숨자 천하는 개인의 일가의 것이 되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아버지만 아버지로 여기고 자기의 자식만 자식으로 여긴다. 재화와 노동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다. 대인이 그 지위를 세습하는 것을 예라 하고, 성곽과 해자로 요새를 만들고 예의를 기강으로 삼아 군신의 관계를 바로 잡는다. 부자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형제를 화목하게 하며 부부를 화합시키고, 전리(田里)를 세우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자를 현명하다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공을 이룬다.

故謀用是作而兵由此起，禹湯文武成王周公由此其選也。

고 모 용 시 작 이 병 유 차 기 우 탕 문 무 성 왕 주 공 유 차 기 선 야

此六君子者未有不謹於禮者也。

차 육 군 자 자 미 유 불 근 어 례 자 야

以著其義，以考其信，著有過，刑仁，講讓，示民有常。

이 저 기 의 이 고 기 신 저 유 과 형 인 강 양 시 민 유 상

如有不由此者，在執者去，衆以爲殃。

여 유 불 유 차 자 재 예 자 거 중 이 위 앙

그러므로 음모가 생기고 병란이 발생한다. 우임금, 탕임금, 주문왕, 주무왕, 주성왕, 주공(禹(우)·탕(탕)·문(문)·무(무)·성왕(성왕)·周公(주공)) 등은 이로 인해 뽑힌 사람들이다. 이 여섯 군자들은 모두 성실하게 예를 따른 사람들이다. 그 의를 밝히고 믿음(信)을 입증하고, 잘못을 밝히고 인(仁)을 본받고, 사양하는 것을 가르쳐 백성에서 '변하지 않는 법칙(常則)'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권세가 있는 자도 제거되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재앙으로 여긴다.

『예기』 「禮運(예운)」



소강사회에서는 **예**가 필요하다

夫禮，先王以承天之道，以治人之情，故失之者死，得之者生，
부례 선왕이 승천지도 이치인지 정고실지자사 득지자생

詩曰，相鼠有體，人而無禮，人而無禮，胡不遄死？
시알 상서유체 인이무례 인이무례 호불천사

是故夫禮必本於天，殽於地，列於鬼神，
시고부례필본어천 효어지 열어귀신

達於喪祭射御冠昏朝聘。
달어상제사어관혼조빙

故聖人以禮示之，故天下國家可得而正也。
고성인이례시지고천하국가가득이정야

그러므로 음모가 생기고 병란이 발생한다. 우임금, 탕임금, 주문왕, 주무왕, 주성왕, 주공(禹(우)·탕(탕)·문(문)·무(무)·성왕(성왕)·周公(주공)) 등은 이로 인해 뽑힌 사람들이다. 이 여섯 군자들은 모두 성실하게 예를 따른 사람들이다. 그 의를 밝히고 믿음(信)을 입증하고, 잘못을 밝히고 인(仁)을 본받고, 사양하는 것을 가르쳐 백성에서 '변하지 않는 법칙(常則)'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권세가 있는 자도 제거되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재앙으로 여긴다.

『예기』「禮運(예운)」



권병(權柄)

권력이 따르는 정치상의 힘



이상향 대동,
현실적인 소감



물지부제 物之不齊

모든 사물은 고르지 않다



오늘날의 대동과 소강



夫禮所以制中也。

부례소이제중야

무릇 예는 절제해서 중정을 이루는 것이다.
「예기」 「仲尼燕居」



예의 본질